

“판각 1000년 팔만대장경은 ‘민족의 보물’임을 실감했다”

대장경 판각 1천년기념 ‘남북불교 합동법회 현장’을 가다

3일 오전9시30분 대한항공 2851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한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 합동법회’ 조계종 대표단은 북경공항을 거쳐 이날 오후4시 평양공항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이날 오후7시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7일 오후12시30분 평양공항을 떠나기까지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중앙위원장장과 이규룡 서기장의 안내 속에 우의와 협력을 다졌다. 둘째 날 만경대 참관에 이어 조선불교도연맹 방문, 대성산 광범사 참배, 셋째 날 국제전선관람관 참관, 묘향산 보현사 남북불교 합동법회, 넷째 날 백두산 삼지연 순례 등 4박5일 일정 가운데 법회와 주요 사찰 참배 등을 사진으로 다시 정리했다.

평양=김선두 기자 sdkim25@ibulgyo.com



심상진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이 평양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와 총무원장 자승스님(왼쪽)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을 숙소인 고려호텔까지 직접 안내했다.



3일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한 조계종 대표단이 중국 북경공항을 거쳐 오후4시 평양공항에 도착했다. 사진 위부터 18개월 만에 다시 평양을 찾은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계사에 이어 두 번째 평경을 전달하는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왼쪽), 보현사에서 안내원에게 합장주와 단주를 걸어주는 총무원장 스님.



백두산 천지. 거구의 성인들마저 오르기 힘들 정도의 거센 바람을 안고 올라간 천지는 ‘평화의 대장경’을 전달하러 온 조계종대표단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다. 하늘빛과 못빛을 서로 바꾸어 놓아도 손색없을 만큼 맑고 투명했다.



새롭게 단장한 암자모습이 나무사이로 들어온다. 묘향산 하비로암.

대장경의 분류표			
구분	권수	내	물
경	3884	불교의 교리를 기록한 것	
률	151	승려들과 사왕의 계율과 조율을 해설한 것	
론	2599	불교의 교의 논점, 계율을 해설한 것	
기	159	전기, 기행문과 불경의 유통을 해설한 것	
계	6793		

보현사 대장경보존고,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은 한 곳 한 곳, 인경본 한 권 한 권을 눈여겨 살펴보고 “비로소 대장경이 민족의 보물임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왼쪽 작은 사진은 보존고 입구에 걸린 대장경 분류표.



위부터 보현사 법회에서 남북공동발원문을 함께 봉독하는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오른쪽)과 조불련 차금철스님, 보현사 서산대사 진영 앞에 선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하비로암 법당. 백두산 천지를 오르는 길.

■교구본사주지 간담회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7일 평양을 출발하기에 앞서 차담을 하며 남북교류의 기초는 ‘공존’과 ‘상생’이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차담에는 7개 교구 가운데 6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총무원의 총무부장 영담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이 자리를 함께 했다.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 4박5일 일정이 탈 없이 진행돼 단장 역할을 한 총무부장 영담스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선각스님(해인사) 이번 합동법회를 통

공존과 상생이 ‘기조’ 조불련 위상 중요하다

해 대장경이 해인사만의 것도 아니고 민족의 보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민족의 보물이라는 게 실감난다. 이번 법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설다. 대장경 한질이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되고 있다는 데 과연 사실인가, ‘불모’로 있는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한 게 사실이였다.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나름대로 대장경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수준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2010년 1월 북한방문에서 한 3가지 약속과 불교의례

통합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교류도 대단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 원혜스님(마곡사) 이번 방북을 통해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결사 가운데 (민족)문화결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 해봤다. 의식에 대한 통일은 한글과 작업이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되어야 한다. 교리 재해석, 수행관 건립 등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남북불교 교류를 함께 있어 신도교류협력 사업도 곁들여 추진했으면 한다. 성조스님(쌍계사) 이번 행사가 꾸준히 이어져 통일의 기초가 되고, 단초가 됐으면 한다. 1999년 4월 다녀간 적이 있는데

가시적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통일 이후를 대비해 (성급하게) 가시적 성과를 바라지 말고 사찰의 보수·유지 관리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꾸준히 진행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는 우리 조계종이 통일문제 관련 한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우송스님(신흥사) 상당히 의미 있는 법회였다. 남북불교도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단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열심히 동참하겠다. 범각스님(대흥사) 서산대사 소절을 보현사에 봉정하게 돼 남다른 감회가 있다. 대북문제에 관한 한 우리에게 있어 조불련의 위상도 중요하다. 조불련이 재정적

으로 열악해 다른 단체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현스님(법주사) 종단과 단체, 단체와 단체, 개개인 모두가 마음을 모아 좀 더 적극적으로 격 있는 모습으로 화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힘닿는데까지 열심히 동참하겠다. 영담스님(총무원 총무부장)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농담 한 마디도 조심스런 곳이다. 이번 법회는 나름대로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혜경스님(총무원 사회부장) 대북사업은 재정 없으면 못하는 사업이다. 북측도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다른 종교에 앞서있다. 사찰이 많이 있어 (문화적) 정서

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재정이 뒷받침되면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총무원장 스님 : 결국 남북문제는 ‘공존과 상생의 문제’다.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다. 각 단체들이 ‘공존과 상생의 길’을 폭넓게 갖지 않으면 어렵다. 공존과 상생의 길을 가는 게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남북문제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종단 입장도 그렇다. 일관되게 공존과 상생의 길을 원칙으로 일을 풀어나갈까 한다. 노현스님 : 말로만 하는 것보다 5교구 분할사부터 북한을 방문했으면 한다. 각 교구본사별로 북한방문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